



“화사하고 따뜻하게”... 봄을 여는 선율

도립 제주합창단 올해 첫 정기연주회 ‘봄이 오면’ 37년 역사 이어온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도 공연

3월, 새봄을 여는 선율이 이어진다. 제주도립 제주합창단과 제주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무대다.

제주도립 제주합창단은 이달 18일 오후 7시 30분 제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올해 첫 공연으로 제120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봄이 오면’이란 주제로 다가올 봄을 화사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음악을 준비했다.

공연은 스웨덴 민속음악을 활용해 작곡된 미사곡인 스웨덴 작곡가 마텐 안손의 ‘Missa Popularis(미사 포폴리스)’로 도립 제주교향악단의 현악앙상블과 함께 문을 연다. 이어 우효원의

‘어기영차’, 대금과 피리가 함께하는 조혜영의 ‘금잔디’와 윤학준의 ‘나 하나 꽃 피어’, 박지훈의 ‘봄이 오면’, 우효원 편곡의 ‘꽃밭에서’ 등 한국 합창곡이 이어진다.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 대목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사랑의 감정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지혜정 편곡의 ‘사랑가’로 공연이 마무리된다.

관람 신청은 이달 18일 오후 5시까지 제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제주 청소년 음악가들도 봄의 선율을 전한다. 이달 8일 오후 7시 제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전문예술법인 (사)제주청소

년오케스트라의 제61회 정기연주회다.

1989년 청소년에 대한 음악교육과 공연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단돼 37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03년 청소년오케스트라 단독법인으로 인가를 받았고, 2005년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로는 처음으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아 다양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허대식 제주대학교 교수의 지휘 아래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 ‘운명교향곡’을 들려준다. 오보이스트 합일규와 바수니스트 김세희가 협연해 ‘비발디’의 오보에와 바순을 위한 협주곡을 선사한다.

한편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26년 상반기 신입 단원을 이달 12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등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응모 자격을 갖는다. 오디션은 이달 14일 오전 10시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실(제주시 구산로4길 13-4)에서 열린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이미지-제주합창단 연주회 포스터 일부



제주에 온 나라 요시토모 일본 현대미술의 거장 나라 요시토모가 제주를 찾았다. 제주와 일본 아오모리현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교류전 ‘바람과 숲의 대화’ 연계 행사로 지난달 27일 마련된 특별 강연에서 나라 요시토모는 ‘아티스트는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일 뿐, 직업은 아님니다-제 경우에는’라는 주제로 제주 관광객과 만나 그의 예술관을 공유했다. 특강 사전 접수에는 170명이 신청해 1시간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국제교류전은 이달 15일까지 도립미술관 전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제주도립미술관 제공

“시민이 제안한 ‘문화예술 교육’ 함께”

서귀포예술의전당 운영

서귀포예술의전당은 2026년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제안으로 추진돼 의미를 더한다. 올해는 어린이부터 청년, 성인까지 전 세대가 이어나갈 수 있는 방식에서 벗어난 ‘예술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과정은 음악영재, 청년예술, 시민예술, 인문예술특강 등 총 4개 과정·12개 프로그램이다.

발레·한국무용창작춤·전통악기 등을 직접 체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오감만족 체험형 교육인 ‘어린이 예술놀이터’와 예술적 잠재력이 뛰어난 음악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피

아노,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성악 등 6개 분야의 국내의 음악가의 1대 1 맞춤 지도와 무대공연 경험까지 이어지는 ‘음악영재 아카데미’가 진행된다.

또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청년들이 6개 파트별 악기 합주를 통해 팀을 구성하고 록 페스티벌 등 무대공연까지 이어지는 과정인 ‘청년 록밴드’, 전문적인 지휘 테크닉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 전문 음악리더를 양성하는 ‘시민 지휘 교실’도 운영된다. 아울러 공연연합 미술사부터 클래식,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전문 강사진의 해설과 실제 공연을 결합한 인문예술 특강도 마련된다.

일정과 참여 신청은 서귀포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상반기 프로그램 중 ‘청년 록밴드’, ‘꿈꾸는 어린이 발레교실’, ‘지휘자 양성 과정’은 이달 10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박소정기자

“창가에 빛 밝으니” 다시 추사를 부른 이유...

김혜정 네 번째 서예전 추사의 시구 담은 53점

‘소창다명 사야구좌(小窓多明 使我久坐·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밝으니 나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하네)’.

다시 추사(秋史)를 부른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본질보다 현상이 앞서는 이 시대에 추사가 제주에서 피워낸 흔들리지 않은 예술혼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은 핵심



김혜정의 ‘使我(사야)’

을 복기하게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인 제주 김혜정 서예가가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제주문화예술회관 제1전시

실에서 네 번째 개인전 ‘창가에 빛 밝으니’를 연다.

3년 만에 여는 이번 전시에서 서예가는 추사의 정신이 담긴 시구를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 서예 작품 53점을 선보인다. 붓, 먹물, 화선지의 본질과 속성을 최대한 활용해 흑과 백의 긴장과 이완을 표출하거나 일상의 순간을 포착해 조형하고, 간결한 붓 터치로 문자에 내포된 의미를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는 “추사의 시구처럼 맑고 청량한 빛이 내 붓끝을 타고 흘러 종이 위에 머문다”며 “그 빛이 지친 이들의 마음을 머물게 하고 한 줄기 쾌활한 기운으로 닿기를 소망한다”고 전한다.

서예가는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장, 제주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공동대표를 지냈다. 전시 개막식은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박소정기자

‘메소포타미아’에서 ‘북미 대륙’ 까지

국립제주박물관 아카데미

국립제주박물관이 ‘2026년 국립제주박물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2~4시 박물관 강당에서 진행

된다.

올해 아카데미 주제는 ‘신화로 만나는 세계: 메소포타미아에서 북미대륙까지’이다. 각 분야 8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대중에게 익숙한 그리스·로마 신화를 비롯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인도·중국·일

본 등 아시아 신화와 북유럽, 북아메리카 원주민 신화까지 아우르는 강연을 펼친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쉬와 메소포타미아’(주원준·3월 25일), ‘우리가 몰랐던 중국 신화’(김선자·4월 29일), ‘인도신화: 영원회귀의 섭리’(김영·5월 27일), ‘일본신화 이야기’(민병훈·6월 24일), ‘북유럽 신화와 반지이야기’(안인희·7월 29일), ‘대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북미 원주민 신화’(유기쁨·8월 26일), ‘사람인가 신인가? 울림푸스의 12신 이야기 그리스·로마신화’(김원익·9월 30일), ‘이집트의 시작은 나일강으로부터’(유성환·10월 28일) 등이다.

강연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로 참여 가능하다. 박소정기자

여덟 번째 경우문예회전 “봄의 시작 목향으로”



경우문예회 작품

제주경우문예회는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제주문화예술회관 제3전시실에서 제8회 정기회원전을 연다.

올해 전시 주제는 ‘다시 봄이 왔다’이다. 이신철 제주경우문예회장은 전시 주제에 대해 “봄의 시작과 함께 관람객들과 새로운 기운과 희망의 목향을 공유하고자 하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전·현직 경찰관

24명이 작업한 서예·민화·한국화·서양화·화각 등 작품 70여 점을 선보인다. 경찰서장을 역임한 고(故) 김관옥 선생의 유작 ‘노근난도’도 전시된다. 박소정기자

수축상
CONGRAT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김용남
(본회 총무이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생태연구회
회장 김종광 외 회원 일동

수축상
CONGRAT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김경철
(주)홍진전략 대표이사 · 이효동자율방재단장 이효동파크골프동호회장

전기공사 및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도리초등학교 제31회 동창회
회장 박상진 외 회원 일동

한리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 대표신문 ihalla.com

한리일보가 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K’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

왕방울 은행나무 성목 판매 (200본)

- 공원 조성용(열매 냄새 없음)
- 수령(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음)
- 재래종 보다 열매는 2배 큼
- 개량종(부채꼴, 대접꼴, 밥통꼴)

문의 : 010-4693-1698